

# 현대불교

법공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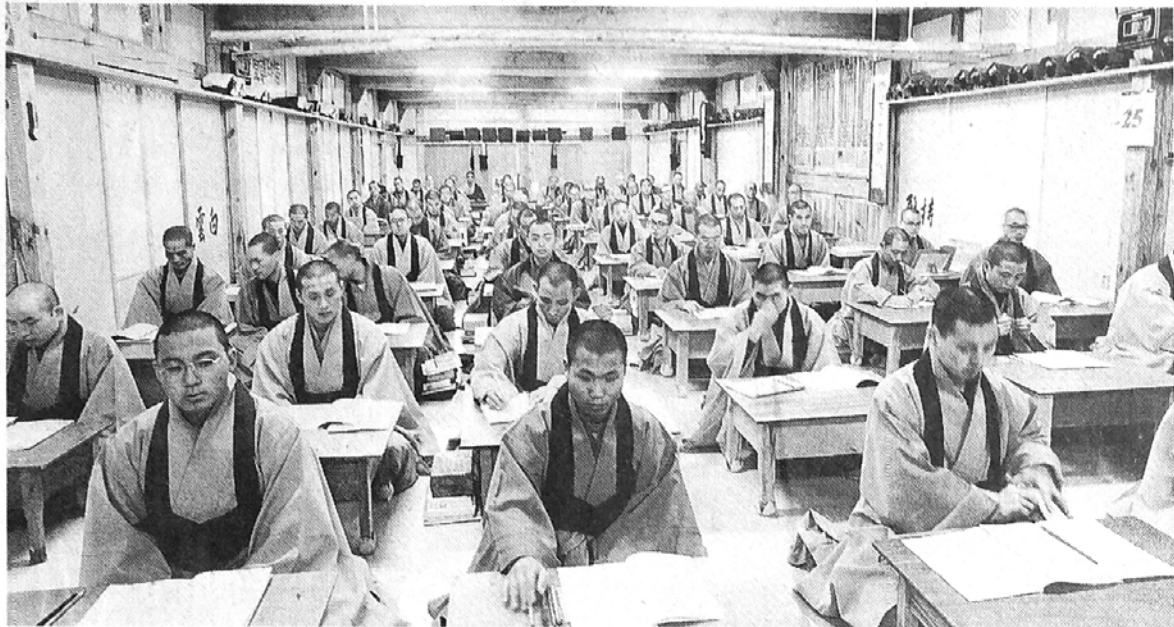
18~19 편

방송·연예

20 편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진화가 있습니다.

구룡사 부설 상담전화  
인생상담 (02) 579-3033



◇ 해인사 승가대 대교반 논강은 옛 교수법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구식 대학형태의 교육보다는 전통강원을 추구하는 출가자들이 늘고 있어 미래불교를 밝게 한다.

### 역대강주

### 운허등 대강백 '가풍' 이어

해인사 승가대학은 해방후 강원으로 서 체계가 잡히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강주는 대장경 한글화에 앞장서온 대강백인 운허(運虛)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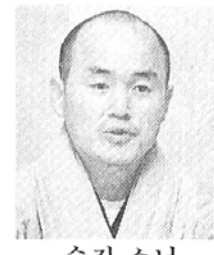
2대 성능(性能), 3대 명봉(明峰)스님에 이어 4대 지관(智冠)스님이 강주로 취임, 64년 명봉을 해인강원으로 개칭하는 등 현대적 강원으로서의 기반을 세웠다. 지관스님은 6대 강주도 역임했다. 현재 해인사 용원장인 종진(宗進)스님도 5대, 10대, 12대 3번에 걸쳐 강주를 역임했다. 7대 관조(觀照), 8대 각성(覺性)스님에 이어 9대 보광(普光)스님이 강주로 취임, 강원의 정취를 확립했다. 또한 11대 무관(無觀), 13대 해남(海南)스님에 이어 현 14대 수진(守眞)스님이 해인사 승가대 수장을 맡아 전통강원의 맥을 잇고 있다.



◇ 운허 스님  
◇ 지관 스님  
◇ 종진 스님

### 강주 인터뷰

### "철저한 수행인 양성"



수진 스님

"승려는 수행을 정분으로 해야 하며 교육 역시 수행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은 학문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승가대보다는 강원이란 호칭을 선호하는 해인사 강주 수진스님은 "강원은 진정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수진스님은 "현재 승가에 만연한 비승가적인 것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재에 기인한다"며 "수행자를 수행자답게 하는 교육, 출가자를 진정한 출가자로 거듭나게 하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또한 "근래들어 전통강원을 찾는 스님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출가자의 기본정서가 서구식 대학형태의 교육보다는 전통적 전통교육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승가대 대학원적인 2년과정의 수의원(隨院)설립을 인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스님은 "도서관을 신축, 시청각 교육 등 현대에 맞는 교육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 청규 엄격... 교학 최정예' 자부

### 1900년 개설...해방후 졸업생 655명 배출

법보종할 해인사의 장강각 뒤편에 자리한 '해인사 승가대학(학장 지관)'은 승가에서도 명성이 높은 '종풍 들이는 곳'이다.

갖 열의사발한 초심자들이 대중생활을 통해 승려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에는 지난해 27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달말 정기교육일이 끝나면 10여명의 초발심자가 '종풍'을 들이고자 해인사 승가대를 찾은 예정이다.

**1백학인 정진 수학**

여기에 2학년(사집반) 34명, 3학년(사교반) 23명, 4학년(대교반) 16명을 포함 1백여명의 학인이 재학하고 있어 근래 보기 드물게 성황을 이루고 있다.

화엄 십대종찰의 하나인 해인사는 개산되면서 의상의 직계인 승운(承運) 이정(利正) 결연(決蓮) 현준(顯俊) 정현(正玄)스님 등이 (화엄경)을 교재로 삼아 교육에 임했다.

당시 해인사 (화엄경) 강설은 유명했다. 회랑스님이 하안거 때 (화엄경)을 강설하자 당시 함양군수였던 최치원이 6수에 걸친 송으로 칭송했다고 하니 승가는 물론 재가자

**내일의 아라한들 ②**

젊은 학승 탐방 **해인사 승가대학**

지 해인사 (화엄경) 강설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철택되었던 해인사 강원은 다시 근대에 이르러 부흥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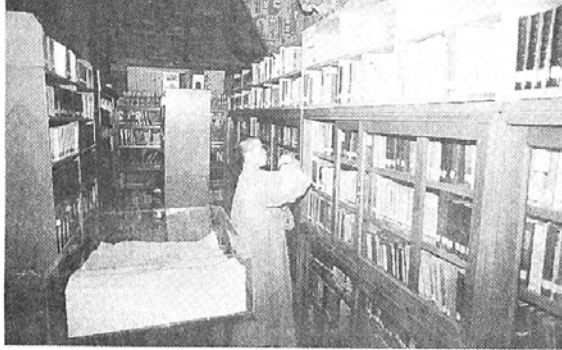
1900년 범운(梵雲)스님이 총재임에서, 1908년에는 사운당에 각각 강원을 개설했으나 중단되었다. 1929년 주지 만응(萬應)스님이 공현당에 강원을 설치했으며 다시 불교교화부 중단되었다가 1955년 주지 자운(慈雲)스님과 대강백 운허(運虛)스님이 '법보종문강원'으로 복원했다. 이후 1964년 '해인사 강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72년 '해인승가대학'으로 바꾸고 다시 1987년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의 신입반인 치문반은 '시집살이'라 할 만큼 고되다

특히 해인사 논강은 옛 교수법대로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논강은 저녁에불후 대중방에 모여 산문으로 2명의 발기스님을 뽑으면서 시작된다. 발기스님들은 하루종일 공부한 글을 새기고 도반들의 질문에 답한다. 그리고 다음날 강사스님에게 공부한 것을 점검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누가 언제 발기스님으로 뽑힐지 알수 없기때문에 학인 모두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곳이든 대중생활이 그러하듯, 새벽 3시 기상 이후 저녁 9시 취침까지 잠도 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강의는 아침 7시 강주스님께 예를 올리는 '상강례'로 시작된다. 그렇다고 강의시간이 일반사회에서처럼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현답에 강원을 설치했으며 다시 불교교화부 중단되었다가 1955년 주지 자운(慈雲)스님과 대강백 운허(運虛)스님이 '법보종문강원'으로 복원했다. 이후 1964년 '해인사 강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72년 '해인승가대학'으로 바꾸고 다시 1987년 '해인사 승가대학'으로 명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의 신입반인 치문반은 '시집살이'라 할 만큼 고되다



◇ 불교전문도서관 인가를 받은 해인사 도서관.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과목은 전통강원의 이력과목을 따른다. 다만 성철스님이 선종의 종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위해 사집반의 (도서(都序))와 (절요(節要))를 빼고 <육조단강(六祖壇經)> <대주어록(大珠師錄)>을 추가했다.

**21세기 대비도 '철저'**

"예전에는 배운것을 외워 바쳤는데 요즘은 머리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가대학의 행정업무 총괄하고 있는 학장 범장스님은 학인스님들의 학습태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또 열정적으로 임하는 논강의 설전에는 전통강원의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해인사는 큰 절이다. 1년이면 대형불사만 10여 차례다. 그러다 보니 학인들의 운력은 끊이지 않는다. 불사마다 행사진행은 물론 김장, 매주 담그기에서 이불발래에 이르기까지 생활하면서 해야할 일들은 운력을 통해 습득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말이면 산행, 다회, 핵거리 만행 등 도반과 마음을 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청규는 유별나다. 치문반은 행자나 다름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승가대의 입학생은 많으나 졸업생은 절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한다.

다행히 한번도 강의 끊김 적이 없어 해인사 승가대의 자랑으로 여겨진다. 36회에 걸쳐 배출한 6백55명의 졸업생은 물론이고 재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동국대 총장을 지낸 지관, 동국대역원장 원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이끄는 범경, 조계종 총회 회장 설경, 대한불교신문 발행인 해충, 불교텔레비전 사장 태운스님들 졸업생들은 불교계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동문회(회장 보광)도 그동안 1억여원의 장학금을 모금하는 등 활동이 꾸준하다.

21세기를 맞는 해인사 승가대학은 완벽한 승려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의 수의원 개설, 도서관 신축 그리고 강사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수행하는 도량이다.

이도량에서의 4년간 대중생활은 고독하게 걸어야 할 수도자로서의 완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들의 벽돌웃음은 어디서나 빛이 난다.

(해인사=이준엽 기자)

- 특별활동**
- ▲ 법사단(단장 덕영):어린이, 학생회, 일반법회 등 해인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법회를 운영하며 매년 여름 수련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 ▲ 다경원(회장 호산):매년 삼짇날(3월3일)과 풍양절(9월9일)에 가야산 종턱의 마애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한다례를 주관하며 회보 다경원(茶慶園)을 내고 있다. 매주 토요일 20여 명의 학인스님이 대중방에서 대화를 연다.
  - ▲ 향승단(단장 서동):30여 명의 스님이 정기적으로 장병위문 수계법회, 강연회, 세미나 등을 펼치고 있다. 매년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 ▲ 신행회(회장 관행):회보발행, 장학금지급, 소년원방회 지원과 학인스님들의 상호회복을 담당하고 있다.
  - ▲ 수다라 편집실(편집장 일해):해인승가대학 교지인 수다라를 86년부터 매년 발행, 금년에 10호를 발간했다. 수다라에는 갖가지 경전에 담긴 사상에 대한 연구논문과 수필 등 학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 ▲ 도서관(관장 범경):경학원(經學院)에 자리한 해인사 도서관은 75년 7월에 개관, 도서관은 고려대장경을 비롯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대장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총 2만 5천 종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 대장경서각연구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서각연구실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대장경서각 연구실을 아래 장소에 마련하고 연구실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반야심경

금번에 새로운 전시실을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B/D 310호  
전화 : 736-0303

대표 지옥 합장

## 대장경 서각 연구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13-8, 보타원  
문의전화 : (02)355-0883, 9735

▲ 심육나한도

殿積香 閣座里

○ 불사내역 ○  
직지사 향적전, 성좌각 등 다수

○ 취급품목 ○  
경판·연판·주련·부처님말씀  
심육나한·산신·독성·탱화 등

※ 서각에 관심이 있고 강습을 원하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